

vol.138

오션의 첫 번째 전시회
'바다의 미래를 그리다' 성료

오션의 해양쓰레기

CONTENTS

Special Issue 특집

3 '바다의 미래를 그리다' 환경 전시회, 부산시민 1,500여 명 방문해

Story Note 최근활동

8 많아도 너무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

10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해양쓰레기 국제워크숍 온라인으로 개최

International Trend 국제 동향

12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각료회의

Seminar Report 세미나 중계

13 2021년 10월 오션 세미나 계획 공지

News clip 해양환경 뉴스

15 거문도 '갯바위' 9곳 휴식에 들어간다
입수하자마자 폐그물 천지... 거제 바다가 쓰레기장인가
莢,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 전면 금지 계획 발표
미세플라스틱, 영유아 대변에서 성인 10배 이상 발견

Notice 공지사항

16 바다의 아픔, 꽃이 되다_김정아 작가 개인전 개최

17 환영합니다!

18 8월 회비 납부 현황 및 후원 방법 안내

“

‘바다의 미래를 그리다’ 환경 전시회, 부산시민 1,500여 명 방문해

해양쓰레기로 만든 예술 작품, “심각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장윤정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Yoonie.jang@osean.net
사진: 김훈, 현진

KT&G 해양생태계 보호 프로젝트 일환

KT&G, 해양환경공단,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이 해양생태계 보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KT&G 부산 상상마당에서 환경전시회를 개최했다. 국내 저명 작가 10명이 참여하여 해양오염, 해양쓰레기와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생물 등을 주제로 회화, 조각, 영상,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약 1,5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전시는 해양오염의 실태를 점검하고 바다와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그려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예술과 해양쓰레기를 융합하여 해양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부산 시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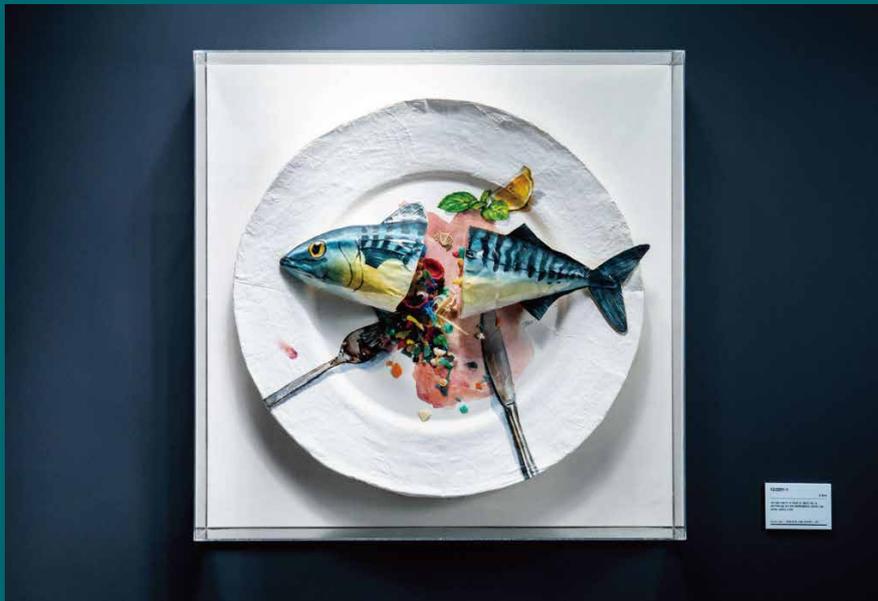


▲KT&G 부산 상상마당에서 9월 3일 개최된 개회식

작가들의 각기 다른 시선과 언어로 해양쓰레기를 재조명해

이번 전시에는 김영민, 김정아, 김지환, 문혜정, 서용선, 이경희, 이두섭, 故정재철, 정채희, 정하응 총 10명의 작가와 해양탐사그룹 팀부스터가 참여하였다. 전시 작품은 해양쓰레기에 대한 작가들의 생각이 담긴 개인작과 단체작, 그리고 팀부스터가 촬영한 수중 쓰레기 정화활동 및 해양생물 피해 사례의 사진과 영상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작가들이 직접 통영, 부산 등지의 해안에서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하여 작품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4층과 5층을 활용해 회화, 조각, 영상, 설치미술, 사진 작품 80여 점이 전시되었다. 전시장 입구에서 처음 만난 작품은 식탁에 올라온 고등어의 뱃속에 플라스틱이 들어있는걸 회화와 바다쓰레기로 표현한 '디너'라는 작품이다. 좀 더 들어가보니 불로장생하는 동식물들을 표현한 심장생도가 병풍에 그려져 있는데 어딘가 이상하다. 동물과 식물들이 있어야할 자리가 흔적만 있고 곳곳에 쓰레기가 널려져있다. 우리 시대의 '신심장생도'에는 플라스틱이 동식물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5층에서는 구슬픈 고래의 울음소리가 전시장을 가득 메운다.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 전달하고 싶은 메세지가 있는 듯 하다. 움직임을 감지해 바다 그림에 다가가지 못하게 위협하는 쓰레기들이 관람객들을 화들짝 놀라게한다



▲디너(김정아 / 63x63x16cm / 한지에 캐스팅, 수채화, 바다쓰레기 / 2007)



▲빈자리2(김정아 / 가변설치/ 아크릴, 바다쓰레기 / 2017)



▲ '바다의 미래를 그리다' 전시회장 내 전경. 중간에 보이는 작품은 정하웅 작가의 S.O.S.
(270x270x15cm / 바다에서 수집한 폐목, 쓰레기, 스피커, 앰프, sound(고래음향) / 2021)



▲ 인류세적 존재(서용선, 이경희, 정채희 공동작업 / 스티로폼, 나무, 장목해변에서 주운 물건들 / 2021)



▲ 숨2/항구2/한여름1 (故 정재철 / 3분 46초, 3분 01초, 6분 10초 /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018)



▲ 당신의 놀라운 능력 (김영민 / 가변설치/ 복합재료/ 2021)

사진 작품들은 바닷속 환경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공유하는 дай버들의 모임, 해양탐사그룹 팀부스터에서 제공하였다. 전시된 사진은 KT&G 해양환경보전 프로젝트의 수중정화활동과 산호초와 물고기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물 등 해양쓰레기에 고통받는 해양생물의 사진 등 아름답지만 슬퍼 보이는 수중 속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팀부스터는 오션과 함께 '해양쓰레기 생물피해 사례집 2: 스쿠버다이버가 수집한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하는 등 수중 환경의 변화를 관찰하여 과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그 기록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8월에 동영 앞바다에서 진행한 해양생태계보호 프로젝트 ▲ 전시된 해양생물피해 사례 작품 (락태진, 다보고있다, 2021)

해양쓰레기 교육 및 비치코밍 아트까지 다양한 체험활동도 선보여

예술 작품 전시 외에 해양쓰레기 체험교육과 비치코밍 아트 체험도 진행되었다. 체험교육은 아이들에게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비영리단체인 드림오션네트워크의 해양쓰레기 전문 강사들이 직접 진행하는 수업으로 퍼즐, 미로찾기와 같은 다양한 교구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비치코밍 아트 체험은 바다에 버려진 유리를 수거해 녹인 다음 동그란 보석 조각처럼 가공된 재료를 이용해 브로치 등 예술작품을 만드는 활동으로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재주도좋아'의 전문 강사들이 지도했다. 이러한 창작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해양쓰레기에 대한 친밀감과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 '바다유리로 얼굴 브로치 만들기' 체험 활동

제7차 국제 해양쓰레기 콘퍼런스 2022년 부산 개최 기념

한편, 이번 전시는 다가올 '제7차 국제 해양쓰레기 콘퍼런스'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국제 해양쓰레기 콘퍼런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쓰레기 관련 국제행사로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개최하였으나,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제안하여 제7차 콘퍼런스를 한국에서 유치하게 되었다. 미국 외의 나라에서 이 행사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며 상당한 국제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7차 국제 해양쓰레기 콘퍼런스는 내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된다.

작가와 관람객 모두 한 목소리 “해양쓰레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해”

오션의 예술감독이자 참여 작가인 김정아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바다와 환경을 생각하는 한 가지 마음을 여러 작가들이 각자의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특별한 전시”라고 언급했으며, “다른 참여 작가분들로부터 깊이 있게 해양환경 문제를 생각해 볼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들었다”며 뿌듯함을 전하였다.

또한, 오션의 홍선욱 대표는 “해양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을 만들자는 논의가 유엔에서 진행될 정도로 현재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전시로 부산 시민들이 해양쓰레기 문제와 제7차 국제 해양쓰레기 콘퍼런스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전시를 관람하러 온 한 대학생은 “이번 환경전시를 보기 위해 인천에서 방문했다”며, “해양쓰레기로 만든 특별한 작품들을 통해 해양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전시 기획들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오길 잘한 것 같다.”는 말을 전하였다.

“

많아도 너무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

김순래 | 강화도시민연대 생태보전위원장 | naga2912@hanmail.net

강화 먼 바다에 주문도, 볼음도 등 작은 섬들이 있다. 이 섬들의 갯벌은 빨보다 모래가 많아 상합(백합)잡이, 건강망 털기, 물 빠진 갯벌 걷기, 송어 낚시, 하얀 백사장 등 동해안의 해수욕장보다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올여름 강화도시민연대 학생들과 여러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하는 대신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전국학생 미세플라스틱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4회에 걸쳐 강화 인근 지역 해안을 조사하였다. 미세플라스틱 체험 활동 조사를 처음 실행한 곳은 황산도 갯벌이었다. 황산도 갯벌은 연안 전체가 빨이어서 이를 채취하는 데 많은 고생을 하였다. 채집한 빨을 물에 넣고 그 속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분리하고자 하였으나 5mm 이하의 눈에 띄는 미세플라스틱은 발견할 수 없었다. 첫번째 조사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여 2차, 3차, 4차는 주로 모래로 이루어진 볼음도 영틀 해수욕장, 석모도 민머루 해수욕장, 주문도 대빈창 해수욕장에서 조사하였다.

여름 막바지 8월 말에 진행된 4차 미세플라스틱 체험활동은 연안정화활동,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조사와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도착한 해변의 모습은 모래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 보일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했다. 강화로 돌아오는 배 시간 때문에 3시간 정도밖에 쫓지 못했는데도 100L 용량의 자르는 금방 20개를 넘었고, 스티로폼 부표, 고기잡이용 밧줄 등은 그 무게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렇게 한 팀이 대형 쓰레기를 모니터링하고 치우고 있는 동안 다른 팀은 미세플라스틱 조사를 하였다. 방형구를 설치하고 모래 표면을 얇게 쓸면서 모래 샘플을 수집하였다. 모래가 젖어 있어서 철제통에 수집한 샘플을 수돗물로 이용하여 모래와 부유성 쓰레기를 분리하고 분류하였다.



▲ 강화 주문도 대빈창 해수욕장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 작업

강화지역 분석결과 2차, 3차 조사에서 분석된 미세플라스틱은 대부분 스티로폼 부표 등에서 쪼개진 발포형 플라스틱 조각들이었고, 개수도 최대 300개를 넘지 않았다. 그런데 4차 조사 정점에서는 햇빛이나 파도에 의해 닳고 모서리가 해진 비닐류 조각이 많이 나왔다. 어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주문도 대빈창 해수욕장은 과거에도 연안쓰레기가 출현하기는 하였으나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연안 쓰레기 양이 많아지고 중국 제품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해진 것은 이웃 섬인 교동도 다리가 놓인 다음부터라고 하였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조류 흐름 등의 과거 데이터는 알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 평생 살아온 지역민의 경험에 의한 이야기를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무시할 수는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버려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양이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미세플라스틱 채집과 습식 분류작업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중 완전히 분해하는 데에 백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느 사이 바다로 들어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 해안 곳곳에 쌓여가고 있다. 손쉽게 사용하고 생각 없이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지금껏 열심히 줌고 치우고 조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연안에 쓰레기가 줄어들기를 바랐다. 하지만 더 자주 줌고 청소해도 쓰레기가 다시 해안을 뒤덮는다. 우리가 쓰레기를 열심히 줌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줌 것보다 버리지 않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생활 습관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학생 미세플라스틱 체험활동'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매우 뜻깊은 활동이다. 참여한 학생들이 플라스틱 재질의 생활용품들이 간편하니까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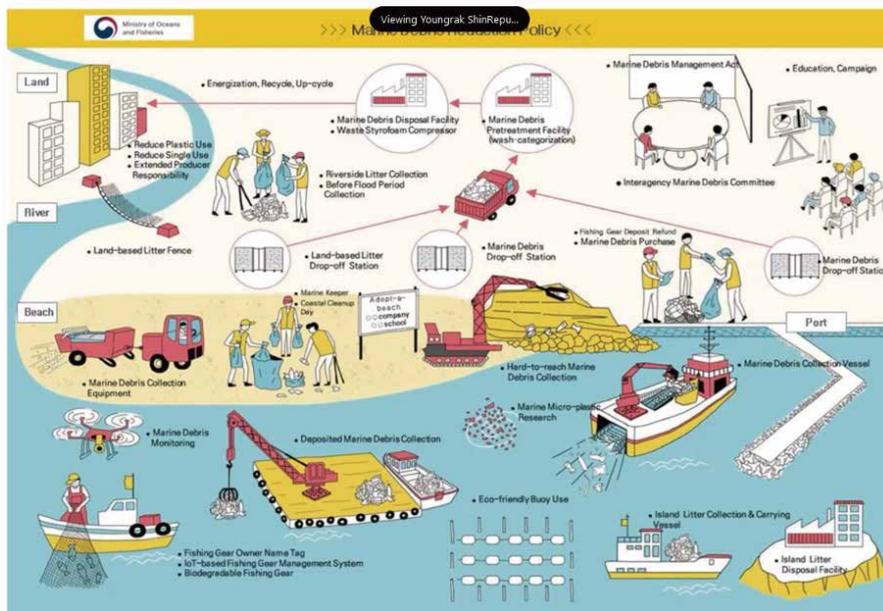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해양쓰레기 국제워크숍 온라인으로 개최

홍선욱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대표 | sunnyhong@ocean.net

이번 달 15일~16일, 유엔환경계획의 지역해 프로그램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이하 NOWPAP)과 한중일 삼국의 환경장관회의(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 TEMM)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해양쓰레기 국제워크숍이 온라인으로 열렸다.

매년 이틀 간의 일정으로 개최하는 이 워크숍은 첫날 NOWPAP의 회원국인 대한민국-중국-일본-극동러시아가 1년 동안 쌓아 온 해양쓰레기 관리 성과와 지구적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둘째 날에는 NOWPAP 4개 국가 공식 담당관들과 지역활동센터 담당자들이 해양쓰레기실천계획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활동계획 및 예산을 심의한다.

올해는 일본 환경성의 다카유키 시게마츠씨가 좌장을 맡아 워크숍을 시작하였다. 회원국가의 국가대표(한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신영락 사무관)가 1년간 진행해 온 해양쓰레기 관련 수행 실적과 발전을 공유하였으며 4개국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활동센터(Regional Activity Center, RAC)의 성과 발표도 있었다. 일정과 주요 안건은 예년과 유사하였지만 각 회원국의 해양플라스틱 대응 노력은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이며 다양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해양폐기물 법률 제정 및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분리수거 정책을 확산시키고 의료·농업폐기물 등에 대한 새로운 플라스틱 규제를 도입하였다. 일본은 2019년 G20 오사카블루선언 이후 활발한 정책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87개국이 이 선언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와 연구기관을 위한 다양한 현장조사 가이드라인도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 모식도(해양수산부 신영락 발표자료에서 화면 갈무리)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홍선옥 대표는 ‘폐어구 관리에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폐어구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할 때 어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홍대표는 보다 많은 어민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때 정책의 효과도 높아질 수 있음을 페스티로폼 부표와 폐어구에 대한 어업인 설문 결과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작년에 이어 초청된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UNEP) 나이로비 본부의 해양쓰레기 담당관 하 이디 세이블리 소더버그,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해양쓰레기 조정관 암페로 로다, 유엔환경계획의 세계환경기술센터(International Environmental Technology Centre, IETC)의 슈니치 훈다,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Basel Convention) 사무국의 수잔 윙필드,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 COBSEA) 사무국의 나탈리 함즈 등이 플라스틱 조약을 제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UNEP), 어구실명화를 위한 가이드라인(FAO),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표준화 방안(COBSEA) 폐기물관리국제파트너십(Basel Convention)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NOWPAP 사무처장 이고르 볼로빅 박사는 “4개 회원국들의 역량이 다른 어떤 UNEP 산하의 지역해 프로그램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며 다른 지역해와 국제적 활동에서 NOWPAP의 역량을 많이 활용하여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2021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과 한중일환경장관회의의 공동 주최 해양쓰레기 관리 국제 워크숍 참가자 단체 사진(NOWPAP 제공)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각료회의

이세미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국제협력팀장 | crhee@osean.net

편집자 주 - 해양플라스틱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매우 활발합니다. 너무 많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션에서는 미국에서 법률을 전공한 이세미씨를 국제협력팀장으로 모셔서 앞으로 종종 지면을 통해 국제동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회, 정부, 관계 기관과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1년 9월 1일-2일, 제네바(Geneva)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본사와 온라인에서 에콰도르, 독일, 가나,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공동 소집 하에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n Marine Litter and Plastic Pollution)'가 열렸다.¹

많은 국가들의 대표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료 성명서의 초안이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 성명서 초안은 올해 5월과 6월 총 두 번의 사전미팅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 협정을 원하며 이를 체결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committee, INC)의 총체적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² 성명서 초안에는 명확하고 공통된 비전을 기반으로 야심 찬 목표와 적절한 지표 그리고 플라스틱의 배출을 현저히 줄이고 지속가능한 대안 및 새 플라스틱 생산 감소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 국제 협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러한 국제 협정에는 1) 국가 간의 격차를 줄이되 현존하는 지역 및 국제 기구의 조치와 중복되지 않으며; 2) 자원순환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 간의 교류와 총체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의 전 주기와 지속가능한 대안을 다룰 해결책을 제시하고; 3) 환경과 인간 건강에 특별히 위험한 플라스틱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4) 개발도상국들의 지원을 위해 기술 지원과 정책 및 법률 체계 개선을 포함한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구현 수단을 수립하고; 5) 플라스틱 배출 제거 및 플라스틱 오염의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진행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보고 그리고 평가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³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들의 역량 강화와 기술 전수 외에 기술 및 재정 지원도 필요하며,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공통된 방법과 정의 그리고 기준이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⁴

내년 2월에 재개될 제5차 유엔환경총회(UN Environmental Assembly, UNEA)에서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된 이 성명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⁵ 일본은 사전미팅에서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현존하는 지역 및 국제적 조치와 중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나 올해 7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과 공동 주최한 '해양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다중 이해관계자 플랫폼 포럼(Forum on the Multi-Stakeholder Platform on Marine Litter and Microplastics)' 중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제 협정을 위해 정부간 협상 위원회 설립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성명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16개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⁶ 반면 아직 성명서를 지지하지 않은 한국은 각료회의 중 해양쓰레기와 맞서기 위한 국제 규범 수립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중국은 다가올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자세한 사항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 협정은 비정부 단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적극 지지하는 추세다. 최근 오션도 '인도네시아 폐기물 플랫폼(Indonesian Waste Platform)'의 주도 하에 '국제 폐기물 플랫폼(International Waste Platform)'의 회원들과 함께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 협정을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작성 중이다. 새 플라스틱 펠렛으로 만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규제하고 플라스틱 오염의 발생원을 억제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와 어업 금지 구역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오션의 입장이다. 국제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끝없는 논의보다는 대범한 행동을 취해야 할 시점이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오션 역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¹ <https://ministerialconferenceonmarinelitter.com/home/>

² <https://conferencemarinelitterplasticpollution.org/ENDORSEMENTS/>

³ 같은 곳

⁴ 같은 곳

⁵ 같은 곳

⁶ 같은 곳

⁷ <https://enb.iisd.org/ocean/conference-marine-litter-and-plastic-pollution>



OSEAN 2021년 10월 세미나 공지

안녕하세요 ?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400여 회의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여 왔고,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그 결과를 해양쓰레기 관계자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과학 지식과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진행해 온 세미나의 성과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며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매월 첫 번째 주 세미나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도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로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또한 오션의 지식 나눔 활동을 지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09. 26
홍선욱 두 손 모아

참가 신청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osean@osean.net)로 신청해 주세요. 논문을 보내드립니다.

결과 정리

세미나 과정은 녹화한 뒤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한글로 정리하여 월간 '오늘의 해양쓰레기'를 통해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일정 변경

부득이한 상황으로 세미나를 열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주 일정이 취소되고 다음 일정은 공지된 대로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세미나 하루 전날(월요일) 오후에 게시판에 변경 공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문의

미리 개설된 원격 세미나실이 담당자의 실수나 네트워크의 사정으로 인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osean@osean.net로 메일을 주시거나 055-649-5224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OSEAN 세미나 일정

10월 5일 10:30 AM 제 423회 오션세미나

해양 법의학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계류 및 표류 물체에 대한 Lepas 기반 군집 부착 생물의 생태
Thomas P. Mesaglio, Hayden T. Schilling, Lewis Adler, Shane T. Ahyong, Ben Maslen, Iain M. Suthers, 2021. The ecology of Lepas-based biofouling communities on moored and drifting objects, with applications for marine forensic science, *Marine Biology*, 168:21

10월 12일 10:30 AM 제 424회 오션세미나

육지와 해저에 있는 일반적인 쓰레기 항목의 글로벌 핫스팟에 대한 사회경제학적 영향
Britta Denise Hardesty, Lauren Roman, George H. Leonard, Nicholas Mallos, Hannah Pragnell-Raasch, Ian Campbell, Chris Wilcox, 2021. Socioeconomics effects on global hotspots of common debris items on land and the seafloor, *Global Environmental change*, in press

10월 19일 10:30 AM 제 425회 오션세미나

대형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임시 저장소 역할을 담당하는 마닐라 강 하구
Tim van Emmerik, Justin van Klaveren, Lourens J. J. Meijer, Joost W. Krooshof, Dixie Ann A. Palmos, Maria Antonia Tanchuling, 2020. Manila River Mouths Act as Temporary Sinks for Macroplastic Pollution, *Front. Mar. Sci.*, <https://doi.org/10.3389/fmars.2020.545812>

10월 26일 10:30 AM 제 426회 오션세미나

베트남 Xuan Thuy 국립공원 레드강 하구의 해양 쓰레기 및 관련 생태학적 영향의 출처별 패턴
Rachel K. Giles, Cindy Anh Thu Nguyen, Thu Thi Yến Hồ, Công Văn Nguyễn, Ngọc Thi Ngô, Chelsea M. Rochman, 2021. Source-Specific Patterns of Marine Debris and Associated Ecological Impacts in the Red River Estuary of Xuan Thuy National Park, Vietnam, *Front. Environ. Sci.*, <https://doi.org/10.3389/fenvs.2021.679530>

회의실 링크

<https://us02web.zoom.us/j/84205413993?pwd=OTNoWUN6UTBwK21JYWtWcnFMaHNkdz09>

※ 오션의 화요 정기 세미나는 되풀이 회의로 예약되어 매주 링크 주소가 같습니다.



이 달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뉴스를 소개합니다.

해양쓰레기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심만큼이나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뉴스를 소개합니다.

거문도 '갯바위' 9곳 휴식에 들어간다

<http://www.greendaily.co.kr/news/article.html?id=20210913130003>

[출처] Greendaily 2021-09-13 차미경기자

입수하자마자 페그물 천지... 거제 바다가 쓰레기장인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0439&CMPT_CD=P0010&utm_source=nave&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출처] 오마이뉴스 2021-08-30 옥정훈기자

英, 1회용 플라스틱 식기류 사용 전면 금지 계획 발표

<https://news.v.daum.net/v/kImxsVUst2>

[출처] 뉴시스 2021-08-28 유세진기자

미세플라스틱, 영유아 대변에서 성인 10배 이상 발견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7&fbclid=IwAR0KozAHGrpkNbarLx9MAKsxp0fEKPTj7VG2Riq35RkOqzmz7xvAulitJclA>

[출처] 뉴스펄컨 2021-09-24 이후림기자

바다의 아픔, 꽃이 되다_김정아 작가 개인전 개최

해양환경의 중요성 인식 함양을 위한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 특별전시전

태안 앞바다는 오래 전에 검은 기름에 뒤덮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가 살아있는 많은 생명과 이 곳 사람들에게 10년 넘게 계속 피해를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바다로 우리 곁에 되돌아 왔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기름 오염처럼 충격적인 사고와는 아주 다릅니다. 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매일 쓰고 있는데 알고 보면 큰 피해를 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번 전시에서 김정아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전시회 안내

- 기간 : 2021년 9월 28일(화) ~ 11월 24일(수)
- 장소 : 충남 태안 유류피해극복기념관 2층 다목적실
- 참여작가 :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품 전시
- 관람료 : 무료
- 주최 : 태안군 / 후원 : 해양환경공단

※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입장할 때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

이번 달 새로 회원 가입해 주신 분을 소개하고 가입인사를 공유합니다.

보다 뜻깊은 활동으로 후원에 보답하겠습니다.

회원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지아 회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시청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대한 어류 및 어패류의 섭취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 생각하여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오션네트워크 회원님

“오션과 함께 한 시간들에 의미를 더하고 싶어서 후원합니다.”

최명애 회원님

“해양환경의 관심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며 해양생태계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환경문제에 주인의식이 동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우 회원님

“해양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에 끊임없이 제안 등을 하고 있다보니 뜻하지 않게 수상을 받게 되어 부상의 일부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회비 납부하신 분들입니다

8월 회비를 내 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오션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연구와 조사 사업을 통해 한발 한발 다가가는 연구기관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보태어 주시는 에너지로 여러분과 함께 시민과학의 기반을 다지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멀리 계시면서도 언제나 믿고 힘이 되어주시는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주)부경정공, 강대석, 강료화, 강성길, 강정훈, 고선화, 고진필, 공필재, 곽연희,
 곽유상, 곽태진, 구교승, 권미양, 권정은, 김경신, 김기림, 김기만, 김기범, 김도근, 김동원,
 김민정, 김민철, 김상문, 김석현, 김선동, 김성우, 김성은, 김소영, 김승규, 김양균, 김영일, 김영준, 김영춘,
 김용환, 김은정, 김정아, 김종덕, 김종범, 김지혜, 김지환, 김진일, 김태리, 김태훈, 김태희, 김태희,
 김해기, 김향희, 김호상, 김호찬, 김환희, 김훈, 김희종, 남정호, 노현정, 두광재, 로라킴, 류영완, 류종성,
 리와인드, 목진용, 문관용, 문명희, 문호방, 민병걸, 박경규, 박경화, 박동민, 박명관, 박미경, 박영규,
 박요섭, 박윤경, 박은지, 박은주, 박인숙, 박주영, 박준건, 박준용, 박지혜, 박진아, 박철민, 박출이, 박희제,
 서은희, 서정미, 서정은, 성홍근, 손석현, 손성민, 손현준, 송영경, 송종원, 시지훈,
 신동조, 신민주, 신소린, 신재영, 신춘희, 심원준, 안명덕, 안병덕, 안순희, 양명기, 양수민,
 오기택, 오은애, 오은지, 오정근, 오정순, 오정환, 원종호, 유병덕, 유영주, 유찬민, 윤동영,
 윤현정, 이강만, 이경희, 이광수, 이광재, 이동경, 이동규, 이문숙, 이보경, 이보경, 이석중, 이승현,
 이영호, 이요셉, 이인숙, 이인식, 이정윤, 이종란, 이종명, 이종수, 이종호, 이주언, 이진석,
 이찬원, 이철용, 이태식, 이현진, 임세한, 임운혁, 임진아, 임채원, 임효혁, 임희근, 장미,
 장원근, 장은영, 전일구, 전현수, 전해영, 전홍표, 정경필, 정민경, 정수경, 정승애, 정임철, 정지현, 정지혜,
 정춘구, 정형욱, 정호승, 조갑자, 조성수, 조성억, 조현숙, 조홍연, 주재영, 차용택, 채홍기, 최승만,
 최영석, 최용준, 최월숙, 최주섭, 최지연, 최지현, 최필중, 최현우, 최희정, 하경도, 하문주,
 하인주, 한기명, 한나진, 한동욱, 해양환경교육센터, 허낙원, 허니랩 김동은, 홍상희, 홍선욱,
 홍성민, 홍성진, 홍원표, 홍준성, 황대호, 황선주, 황열순, 황지현, 황혜진

• 회원가입과 후원 바로가기 http://www.osean.net/support/support_01.php •

회비 / 기부금 계좌

농협 301-0051-2766-11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E-mail osean@osean.net

Tel 055-649-5224

Fax 0303-0001-4478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3-57,
 다임솔카운티 101동 210호 (우53020)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ur Sea of East Asia Network, OSEAN)은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위해 2009년 설립된 비영리 연구소입니다. 해양환경 중에서도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동시에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민과 기업 등 해양환경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는 물론,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 고자 합니다. 오션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대표 홍선욱 **연구소장** 이종명

연구원 이종수, 정호승, 김여훈, 이세미, 박은진, 장윤정, 이유리, 최상현

이사 강대석, 이인식, 시지훈, 이규태, 김기범

상임고문 김인환, 최주섭

예술 감독 김정아

교육 프로그래머 김태희, 이종호

전화번호 055-649-5224

홈페이지 www.osean.net

이메일 osean@osean.net

카페 cafe.naver.com/osean

인스타그램 [@osean_net](https://www.instagram.com/osean_net)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23-57, 다임솔카운티 101동 210호 (우 53020)

저작권은 본사에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 기사를 인용할 때는 아래와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월간 뉴스레터 '오늘의 해양쓰레기' 통권 138호 2021년 9월호, 홍선욱(편집)

O·S·E·A·N
Our Sea of East Asia Network

오션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